

미래를 살아가는 힘, 부모가 길러주는 '창의성'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에디슨, 아인슈타인, 모차르트와 같은 유명한 위인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창의력은 특별한 사람들이 가진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풍부한 경험과 지식, 시간과 노력에 따라 뛰어난 창의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창의성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말한다고 갑자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창의성을 길러주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열린 질문으로 대화하고 도전을 격려해주시기! 부모는 창의성을 위한 가장 훌륭한 스승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위인전 읽기 포인트와 자녀의 창의성을 길러주는 대화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창의적 인물에 대한 '위인전 읽기'

위인전 속 위인들은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묘사됩니다. 이 경우 아이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은 따라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위인전을 읽을 때는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할까요?

평범하거나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한 위인들



조선시대의 과학자 장영실은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또,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중요한 인물 100인'인 영화감독 스티븐 스피버그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고, 왜소한 체격이라는 이유로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다.

에디슨과 아인슈타인에게는 과학이, 장영실에게는 발명, 스티븐 스피버그에게는 영화제작이, 빌게이츠에게는

컴퓨터가 있었고, 이들은 모두 자신의 일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지식을 확장시키도록 도와주세요.

천재의 특성은 '노력'이다.

전구를 발명할 때 3천 번 이상의 실험과 실패를 경험한 발명왕 에디슨은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이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창의적인 인물들에게는 남들보다 더 많은 실패와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자녀의 '창의성'을 길러주는 대화법

어떻게 질문해야 할까?

√ 열린 질문하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반문하기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 충분한 시간 주기

질문 후에는 최소 10초 이상을 기다린다.

√ 다양한 대답이 있는 질문하기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 "좋아하는 음악이 뭐니?"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 항상 답을 줄 필요는 없다. √ 자문자답하지 말자.

√ 비판, 무시하지 말자. √ 다양한 답변을 유도하자.

√ 정답을 판정하지 말자. √ 개성 있는 답을 존중하자.

정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화를 통해 무엇을 배우냐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대화를 즐거워하고 자기 생각에 자신감을 갖게 도와주세요. 자신감과 함께 사고력이 자랍니다.

(출처: 전국학부모지원센터, 「부모가 길러주는 창의성」)

Q 장래희망 결정을 못하겠어요. 제게 어울리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저는 잘하는 것도 별로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평소 수학과 영어, 음악을 좋아하지만 체육과 사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기타와 피아노를 기초 단계만큼 배우고 있고, 운동신경은 별로 없으며 잘하는 운동도 없습니다. 꾸미는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 별로 잘하지 않습니다. 흥미 있는 것도 딱히 없습니다.

제게 어울리는 직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초등학교 시기는 진로를 인식하는 시기입니다.

봄날이 화창하게 그 빛을 보여주지 않으면 앙상하게 마른 나무들에게서 무슨 꽃이 피어날지 모릅니다. 어느새 피어난 개나리나 진달래가 겨울에는 노란색과 분홍색 꽃으로 피어날 줄 모르듯이 질문자님은 아직 그 꽃을 피울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즉,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거나 금방 알아챌 만큼 성장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지금 질문자님은

나이에 맞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두뇌가 통합적으로 성장하므로 음악, 미술, 체육을 포함하여 다양한 공부를 하는 시기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운동이나 사회에는 관심이 없지만 다른 악기나 기본 교과목에 관심이 많으므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초 실력을 쌓고 미래를 위한 준비에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나무들이 겨울에 힘을 비축하고 거름을 먹으며 봄의 꽃을 준비하듯이 질문자님도 기초 실력과 감성을 깨우는 예체능 공부를 하면서 멋진 청소년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 점차 무엇인가 더 좋아지고 그것을 하면 행복해지는 일들이 찾아질 것입니다. 지금처럼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스스로를 잘 관찰해 보세요. 또한 진로 흥미 탐색활동(커리어넷)과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해 자신이 더 끌리는 직업이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진로성숙이 이루어지고 결국 질문자님만의 꿈이란 꽃을 찾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출처: 커리어넷(www.career.go.kr) > 학생·학부모 진로상담 사례)



4월은 과학의 달, '과학을 즐기세요'

국립과천과학관에서는 '스티븐 호킹, 별이 되다'라는 주제로 전시해설 프로그램이 실시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일시 : '18. 4. 7. ~ '18. 4. 29.
매주 토·일요일 11시, 14시 30분(총 16회)
- ▲ 장소 : '노벨상과 나' 상설전시관 내 영상관
- ▲ 대상 : 초등학생 이상 가족
- ▲ 접수처 : 중앙홀 1층 전시해설센터(1회당 30명 내외)
- ▲ 문의 : 국립과천과학관(02-3677-1500)
- ▲ 진행자 : 과학해설사(SC)
- ▲ 프로그램 내용

시간	내용
11:00 ~ 11:15	[강연] 스티븐 호킹 박사 생애 및 업적 소개
11:15 ~ 11:20	[관련 전시물 소개] · 자연사관(탄생-모든 것들의 시작) · 스페이스 월드(빅뱅, 우주의 전 역사를 경험하다, VR체험 등)
11:20 ~ 11:30	[관람객 참여] 호킹 박사에게 보내는 편지(우편엽서 작성 및 부착)

※ 14:30 타임도 동일 순서로 진행

☐ 진로 관련 소식(행사, 기관, 정보 등)을 parent@nile.or.kr로 알려주시면 지면에 소개하겠습니다.